

인류가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

인종차별의 문제 정면으로 파헤친 원작과 영화들

외형상 평등과 박애를 근본으로 삼는 서구적 인식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열강들의 필요에 의해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지도 안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꿈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질서와 차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이라는 점이다.

마오리족 후손의 뭉클한 삶

95년 하반기 국내에 개봉되었던 뉴질랜드 영화 《전사의 후예》(Once Were Warriors)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삶과 좌절을 그려낸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인종영화로는 드물게 몬트리올, 베니스, 더반, 로테르담 등 세계 유력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및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인종영화가 영화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주제의식, 작품성, 화면미학 등 영화예술이 갖는 기본요소들에 있어 모두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영화이다. 리 마타호리 감독, 베스 역의 레나 오웬, 제이크 역의 타무에라 모리슨, 그레이스역의 마멩가로아 커벨 등 감독과 주연배우 모두가 마오리의 후손이었기에 이 영화는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존재하게 한 가장 큰 자양분은 마오리족 출신 신예 소설가 알란 더프의 원작 소설이었다. 1990년 출간된 이 소설은 《한때는 전사였다》는 원제처럼 백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 밀림 속에서 좌절의 나날을 보내는 마오리족 일가의 처절하면서도 뭉클한 삶을 형상화 해내고 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뉴질랜드 내에서 수많은 권위 있는 소설상을 휩쓸기도 했다. 영화 제작사 커뮤니카도가 출간 직후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화판권을 사들인 것과 주연 여배우 레나 올렌이 이 책을 읽은 직후 "영화화 한다면 내가 베스 역을 하고 싶다"고 스스로 원했다는 사실도 무리는 아니다.

소설은 과거에 전사였던 민족적 기질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되었는



알란 더프의 원작을 영화화한 《전사의 후예》 중 한 장면.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영화는 조상의 땅을 떠나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한 마오리족 여인의 굴곡 많은 삶의 편력을 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화판에 처음 데뷔하는 감독이 신인작가의 첫 장편을 가지고 만든 영화 《전사의 후예》는 '빗물을 받아 마시는 깨끗한 나라' 뉴질랜드의 인종문제와 가정폭력의 치부를 들추며 과감하게 던지는 마오리족 여인의 도전장이다.

백인의 시각으로 그려진 인디언

백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 올 무렵 북미 대륙에는 2천여개 소부족에 450만명의 인디언들이 살았다. 그러나 대륙의 주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미합중국의 3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디언들의 근세사를 왜곡하는데 가장 앞장선 장르는 바로 '영화'였다. 흔한 서부영화에서 인디언들은 본능만 남은 악한이나 미개한 약탈자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것은 그나마 진일보했다는 최근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영화가 국내에 개봉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라스트 모히칸》이다. 마이클 만 감독의 이 영화는 19세기 후반 제임스 페니어 쿠퍼의 《가죽 스타킹 이야기》(Leatherstocking Tales) 연작의 하나인 《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백인들을 도와주는 인디언 네티 범포는 이 영화와 원작 속에서 신화적인 영웅으로

마오리족 출신의 신예작가가 쓴 《한때는 전사였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 《전사의 후예》는 과거의 민족적 개성이 얼마나 파괴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인 원주민의 삶과 좌절을 주제로 한 소설과 영화는 '인종'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는 죄악이 있는 한 앞으로도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존재한다. 그는 기병대를 안내하고, 정착한 백인들을 도와주며 이념이 다른 인디언들을 죽인다. 결국 그는 미합중국 기병대 먼로 대령의 딸 코라와 사랑에 빠진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네티 범포가 순수한 인디언 혈통을 지니지 않은 인디언의 손에 의해 길러진 백인이라는 점이다. 백인 작가와 백인 감독은 결코 자기들의 피를 원주민의 피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존밀러니스 원작의 《대 추장 제로니모》를 영화화한 《제로니모》 역시 왜곡된 북미 인디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백인들과 타협하지 않은 채 끝까지 항전을 벌인 카리카와 아파치의 마지막 추장 제로니모는 그의

생애 처음으로 신을 원망한다.

“신이여 당신은 왜 백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땅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백인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영화는 전쟁과 투쟁보다는 한 인디언 지도자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구식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백인 사령관과의 담판에서 철학과 논리로 그를 굴복시키고 평생 신과 자연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한 인간의 모습을 감동깊게 그리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원작소설은 국내에서도 1970년대 이후 어린이 취향의 동화로 각색되어 널리 읽혀졌다.

켄 키치의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역시 진일보한 인종적 시각이 드러나 있는 영화이다. 백인 주인공 백 머피와 인디언 추장 빅치프가 주요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영화와 소설에서 관객과 독자들은 인디언의 언술을 통해 백인 주인공의 행동을 읽는다. 인간의 내부 욕망을 다루고 있는 영화의 무게중심을 유전형질 속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인디언의 시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종차별의 문제

동명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미드나이트 카우보이》와,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도 인종문제는 이야기 구조의 중요한 국면을 만들어간다. 《미드나이트 카우보이》는 백인과 푸에르토리코인 간의 편견 없는 우정을 그리고 있으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주인공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집안간의 싸움'이 아닌 백인 갱들과 남미계 갱들의 반목으로 묘사되고 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인종문제를 두 남녀의 좌절된 사랑을 통해 상징해내고 있는 것이다.

인종문제를 다루고 있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는 지금까지도 종종 있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제작될 것이 분명하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죄악이 계속되는 한 많은 작가와 감독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허연기자